

2021  
03

#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 CONTENTS

### 02 COVER

27대 협회장 취임사

### 03 COVER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 04 GREETINGS

신임 시도회장 인사말

### 08 SPECIAL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을 위한 타당성 연구

### 10 KAMT NEWS

시도지회 소식

### 제458호

####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 Bright Technology, right decision 브라이텍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유주, 하성일  
 기자 최현빈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비대면으로 진행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성공적으로 마쳐

코로나19 감염 차단 위해 비대면으로 총회 진행  
 27대 장인호 협회장 연임, “회원이 바라는 중앙회 협회장, 뚜렷한 협회장, 든든한 협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3년간 봉사하도록 하겠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월 20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7대 협회장 및 부회장, 감사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매년 2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는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해 중앙회 집행부가 제안한 그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행사다. 총회에서는 임상병

리사와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 및 결산보고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27대 협회장 및 부회장, 감사 선거도 진행했다.

본격적인 총회를 시작하기 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7대 협회장(부회장) 및 감사 선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사용해 이뤄졌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끈 구분경 선거관리위원장과 최혜숙, 민영훈, 최병호, 이태복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원칙, 그리고 규정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협회에 제출하였다.

총 191명이 참여한 임원 투표에서는 기호 1번 장인호 협회장 후보와 기호 2번 노경운 협회장 후보가 경선을 벌였다. 개표 결과 장인호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1번 장인호 후보는 김건한, 김대중, 김상원, 김형락, 유필상 부회장과 함께 27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협회를 이끌게 된다.

장인호 후보는 ▲시도회, 분과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확대 ▲세종시 사무국 분소 설립 ▲직선제 도입 검토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무국 분소 설립 ▲육안병리사와 감염관리, 분자유전의 전문임상병리사 법제화 추진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 ▲‘임상병리사법’ 추진 및 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원 회원 참여 ▲중소병원 회원 다양한 지원 및 최저 임금 가이드라인 전국 확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추진 및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설립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직후 장인호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협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많이 생겼다”며 “회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중앙회 협회장, 뚜렷한 협회장, 든든한 협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3년간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협회장 선거에 이어 진행된 감사 선거에서는 김성신(원광대학교병원), 심현설(삼성서울병원), 신동호(인천백병원)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 취임사



존경하는 임상병리사 회원 여러분!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비전과 행동, 잘해온 3년, 더 잘할 3년, 통합해 투쟁하고 성과 내는 협회'라는 구호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26대 협회장으로 지내면서 회원 여러분들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해 주는 협회가 되어 주세요"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27대 집행부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업무범위를 더욱 늘려나가고, 동시에 회원 여러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협회가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27대 집행부에는 보험부, 중소병의원부, 정부부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여러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보험부는 수가를 비롯한 세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중소병의원부는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했던 중소병의원 회원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는 협회 집행부에서 직접 챙기고 집중할 수 있도록 신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는 이러한 협회 집행부의 노력이 실제 법 적용까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유관단체와 끊임없이 소통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26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의로 집진기관 및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소병의원부의 역할을 기존 위원들에게 알리고, 그동안 진행해온 임상병리사 임금 가이드라인, 간호조무사 등 타 지역에 대한 업권 침해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협회가 중소병의원 회원을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7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갖는 책임감을 집행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감당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성과내는 협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모든 임상검사 분야와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임상병리사 회원 여러분의 역량과 힘을 믿습니다. 제27대 집행부의 약속인 신뢰받는 협회, 함께하는 협회, 힘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상황 속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모든 회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마음껏 모여 여러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3년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우리 협회가 임상병리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봐주시고, 조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27대 협회장 장인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임상병리사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강대청(해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신영숙(제주대학교병원), 이형섭(전북대학교병원), 조용희(강원대학교병원), 황선중(충북대학교)
- **자랑스러운 임상병리사상**  
조운한 자문위원
- **최우수지회 표창**  
강원도임상병리사회
- **우수지회 표창**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 **최우수분과학회 표창**  
대한임상면역검사학회, 우수분과학회 표창,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 **공로패**  
김성신(원광대학교병원), 신경희(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상목(동강대학교)
- **감사패**  
지멘스 헬시니어스, 시스맥스코리아㈜
- **제47회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전국우수 박형진**(경북대), **윤예린**(신성대), **김명준**(동남보건대)
- **집행부 근무표창**  
김상원 총무이사, 박희열 재무이사, 박종오 법제이사, 이상희 학술이사, 김철 공보이사, 강효찬 국제이사, 정해용 총무부장, 안상일 학술부장, 강부석 교육부장, 김영식 정보통신부장, 박준영 국제부장, 정지은 설의부장
- **직인 근무표창**  
오평록 사무국장, 신태호 선임팀장, 오규창 운영지원팀장, 박소현 학술교육팀장, 이창한 재무회계팀장



시도회 우수회원 표창자는 22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소속지회	성명	근무처	소속지회	성명	근무처
서울시회	김희성	가톨릭관동대학교	경기도회	김정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명석	강북삼성병원		정문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순철	중앙대학교병원		최충열	동수원병원
	김진희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		박종훈	속초의료원
부산시회	김홍석	이대목동병원	충북도회	이석준	청주대학교
	김경아	해동병원	충남도회	김기욱	아산시 보건소
대구시회	김상규	영남대학교병원	전북도회	김은정	전북대학교병원
인천시회	박익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전남도회	이민혁	순천한국병원
광주시회	최드레	보훈병원	경북도회	신예주	포항여성아이병원
대전시회	유성은	선사내과의원	경남도회	김문진	부곡정신병원
울산시회	이강우	적십자 혈액원	제주도회	장정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

우리 협회는 지난해 크게 ▲임상병리사 및 협회 위상 강화 ▲임상병리사 업권 수호 및 권익 신장 노력 ▲학술 및 교육 역량 강화 ▲협회 운영 개선 및 조직 역량 강화 ▲회원 단합 및 대외 활동 5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이 이뤄졌다.

### 임상병리사 및 협회 위상 강화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경제위기 상황 가운데서 협회는 TV 프로그램, 메이저 일간지를 통해 임상병리사 역할 및 활동을 홍보하고, 헌혈, 손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마스크, 방역물품 등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해 국가, 지자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와 협력하여 국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4개 의료기사단체를 참여시켰으며, 우리 협회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 임상병리사 업권 수호 및 권익 신장 노력

협회는 진단검사의학회,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와 검사 건수 당 임상병리사 수 제법화 토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1차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임상병리사가 심사자로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검사실운영부문에 임상병리사 수를 심사 문항에 추가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 학술 및 교육 역량 강화

2020년은 학술, 교육에 관련된 성과가 유난히 많은 해였다. 우선 2022년 세계임상병리사 연맹(IFBLS) 총회 및 학술대회를 수원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2022년은 협회가 출범한지 60년을 맞는 해로 그에 걸맞은 최고의 학술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가 2020년 교육부 학술지 재인증평가에서 총점 93.07점을 받아 앞으로 6년간 등재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가칭) 설립 신청, 육안전문임상병리사 출범, 제58회 종합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학생임상실습 교육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협회 및 회원들의 학술·교육 역량의 발전이 활발히 이뤄졌다.

### 협회 운영 개선 및 조직 역량 강화

협회는 2018년부터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정착시킴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 및 운용체제', '지출예산 집행체제'를 마련했다. 더불어 중앙회와 시도지회, 분과학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회계 통합관리시스템(사이버브랜치)도 구축했다.

###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협회도 비상 업무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화상회의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 화상회의를 위한 카메라, 마이크 등의 장비를 설치했고, ZOOM, YEALINK 화상회의의 계정을 구매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상회의에 대한 정관과 운영체칙을 제·개정해 이사회, 위원회, 부서별 회의 등을 원활히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홈페이지 2차 고도화

홈페이지 2차 고도화와 영문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해 홈페이지와 온라인 보수교육 편의성을 더욱 확대했다. 이전부터 회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온라인 보수교육 장바구니 서비스와 함께 ▲보수교육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구축 ▲문자 및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시스템 도입 ▲영문 홈페이지 고도화 등을 진행했다.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12개월의 장애관리 기간을 두어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6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회는 2021년 사업계획안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회는 2021년도 사업 목표를 '전문가로 인정받는 임상병리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협회!'로 잡고 이를 위해 ▲제도적 위상이 향상된 임상병리사 ▲전문가로 인정받는 임상병리사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협회를 4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했다. 각 전략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는 ▲법·제도 개선 강화 ▲대외협약 강화 ▲언론 홍보 강화 ▲학술교류 활성화 ▲연구활동 활성화 ▲보수교육 강화 ▲정회원 복지혜택 강화 ▲권익 향상 ▲취업 및 재취업기회 제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신성장동력 확보를 꼽았다.

대의원총회에서는 각 세부 실행과제와 함께 27대 집행부 각 부서(총무·재무·정무·학술·교육·공보·정보통신·기획·법제·보험·국제·섭외·중소병의원)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대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장 강복만입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 모두의 일상이 완전히 바뀐 한 해였습니다. 신종 전염병인 COVID-19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와 진단 검사에 앞장서는 우리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인식이나 위상이 회원님들의 노력에 비해 많이 모자란 것은 우리 협회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회원 전체의 단합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대면 활동이 COVID-19로 인해 제약됨에 따라 서울시회의 주요 사업이었던 대면 보수교육과 여러 회원 단합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는 회원의 권익과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변화된 현실에 당당히 맞서 구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회에서 진행하던 행사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회원님들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느꼈던 단합된 힘을 온라인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비대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임상병리사의 위상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는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회원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서울시회는 회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임상병리사의 권익 수호와 임상병리사 위상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회장 강 복 만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27대 회장 황원주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코로나19로의 K-방역의 우수성과 진단검사 인지도 향상 이면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또한 보건의료환경과 보건의료산업에서 변화의 속도는 쓰나미의 물결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적자생존,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27대 부산광역시회 회장단(강상봉, 강중원, 임웅)이하 집행부는 함께하는 협회, 기회를 준비하는 협회, 미래를 이어가는 협회의 비전을 가지고 첫째, 권익강화위원회, 학술위원회, 포상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회원 참여형 협회로 변신하겠습니다. 둘째, 법정 단체에 준하는 회무와 재무의 업무 개선을 위해 시회 동정 알람과 세무 및 회계 법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협회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열린 협회로 변모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 및 부장 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 심화과정 개설, 원거리 교육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전문병리사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들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보수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업권 홍보를 도모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회를 회원과 함께하며, 보건의료전문인력으로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위한 권익단체이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전문가단체로 변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회 역대 회장님과 이번 경선에서 회원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출마해 주신 유병안, 조광래, 이상미, 조희로, 조경순, 성희경, 정태전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고, 코로나 19를 극복하여 일상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장 황 원 주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 회원 여러분! 제18대 회장 김한규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국민을 위해 묵묵히 K-방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는 회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위상강화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겠습니다. 항상 회원 여러분과 선배님,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곳에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인천광역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열정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장 김 한 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대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장 유황림입니다.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가정과 직장에 건강하고 행복한 대구시 회원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장 일선에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대구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대구시 회원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신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임상병리사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협회라고 생각하고 회원들의 업권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임원진들과 소통하면서 더욱더 대구시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대구시회 미래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권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사업과 협회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구시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회 회원 여러분들께 권익과 위상강화를 위해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린 대구시회로 회원 존중과 회원들의 만족을 위하여 신속 다양한 의료 정보 공유를 통한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중소병원과 개인병원 근무회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신교육 정보 제공 등 소규모 워크샵 개최하여 소외받는 회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셋째, 회원 Needs에 근거한 수준별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교육 실현으로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과 함께하는 보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사회봉사를 통한 임상병리사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임상병리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대구시민을 위한 보건의 날 행사기간에 무료 혈액형검사,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어려운 독거노인 가구에 사랑의 연탄배달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임상병리사의 이미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 복지사업을 위해서 콘도사업, 경조사사업 등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타 지역 시도회보다 현 집행부 및 역대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대구시회가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 되어 저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시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함으로써 우리 대구시 임상병리사회의 앞날은 열정과 힘이 넘치고 미래가 있는 대구시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시회의 회원여러분들과 합심하여 권익과 위상강화를 높이는 대구시회를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장 유 황 림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임상병리사회 27대 집행부를 다시 한 번 이끌게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국민들의 고충이 지속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임상병리사의 역할도 더욱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얻은 보람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또다시 부딪치는 우리의 현실은 아쉽지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임상병리사가 마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집행부는 경기도회원들의 성원으로 존재함을 잊지 않고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26대 집행부를 지내면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했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앞으로 임상병리사의 현재와 미래에 꼭 필요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 병리표준화 사업
  2. 생리기능 활성화 위원회 발족
  3. 임상병리사 홍보 사업(코로나 지하철 광고 및 마스크 광고 홍보)
  4. 경기도임상병리사회 60년사 역사편찬 사업
  5. 동물병원에서 향후 임상병리사 역할에 대한 준비사업
  6. 시디지탈헬스케어 사업 준비
  7. 보합청구심사 교육지원 사업
-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성원에 보답하는 27대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회장 이 광 우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12대 협회장인 송치웅입니다. 협회 일하면서 가슴 벅찬 일도 있지만 아직은 미흡함이 많이 남은 협회장으로의 3년이었습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임상병리사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발전에 관해 많은 생각과 이야기기도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순 없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협회는 임원 몇 명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회원들과 소통하며 회원중심의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전 11대에서 시행했던 보수교육과 각종 행사 등의 협회활동이 잘 정착되어 대전광역시 협회발전의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앞서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집행부임원은 혼연일체로 뭉쳐 협회와 회원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장 송 치 웅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제9대 울산광역시회장 이도왕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생각,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기치 아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되었습니다. 출마 전에 끊임 없이 고민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생각하는 협회는 어떤가? 회원들이 바라는 울산시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보다 답은 간단하였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상병리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협회, 울산시 회원들에게 협회비를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 여러 행사에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재미와 보람이 있는 행사 개최, 만족감이 있는 보수교육, 울산의 자부심을 위한 전국종합학술대회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제9대 집행부는 20대의 부장, 30대의 이사, 40대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회원만을 위한 울산시회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참석이 울산시회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장 이도왕 부회장 남상열, 유승인, 한경자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회원님. 제13대 광주시회장 서정훈입니다. 우선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12대 총무이사, 행정부회장을 지내며 선임 회장님들과 그 조직 내에서 광주시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자던 다짐이 이제는 앞으로의 광주시회가 나아가는 모든 발자취에 그 과오를 적어가는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광주시회 제13대 집행부는 중앙회에서 집행하는 정책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뉴노멀 시대에 맞는 회원의 권익과 필요한 행정의 변화에 있어서 의료기사단체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주저 없이 중앙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제 13대 집행부는 각 부서별 맡은바 책임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회원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품위 있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대 집행부가 이뤄놓은 많은 사업들을 회원들의 니즈를 담아 지속적으로 다듬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진단검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나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장 서 정 훈



강원도임상병리사회



존경하는 강원도 임상병리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제24대 회장을 맡게 된 오기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590여명의 강원도회원과 전임 집행부의 애김없는 성원과 독려덕분에 강원도회가 2020년도 최우수회로 선정되는 영광을 받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권역별로 소통과 화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강원도회의 자랑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 24대 집행부는 회원의 손과 발이 되어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도회의 발전을 통하여 임상병리사의 위상을 높여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집행부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살피고 좀 더 나은 근무조건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며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되는 진단검사 기술의 교육과 학술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끌어 온 역대 집행부의 성과를 이어 받아 더욱 더 발전된 강원도회가 되기 위해서 현 집행부는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망설임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회원 여러분께서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임상병리사회 회장 오 기 진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를 이끌 회장 김홍주입니다.

지금 전세계와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을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 친지들과 모여 앉아 덕담을 나누던 설은 마치 옛날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일상처럼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협회 회원들은 어느 누구보다 바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주도회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안전한 제주도가 되었습니다. 올 신축년에는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는 회원 여러분과 저에게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회원님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종합학술대회를 제주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하여 협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었지만 우리 새로운 희망도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열악하지만 전국의 많은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응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제주에서 제주도회 회원 여러분의 힘으로 치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중앙회와 합심하여 소통하고 단합된 제주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행복과 건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회장 김 홍 주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존경하는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회원 여러분! 제27대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을 맡은 서산중앙병원 이상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염병 관리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회원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충남도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회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충남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집행부는 전직 집행부에서 일궈놓은 일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며, 젊고 유능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함께 할 것이며, 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내실 있고 든직한 충남도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는 숭선수범하여 회원님들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중앙회에 잘 전달하여 새로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같은 존재로 회원님 곁에 묵묵히 함께할 것입니다. 믿고 응원해주시면 최선을 보답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 이 상 훈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사랑하는 충북임상병리사회협회 회원 여러분! 충북도회장 조성훈입니다.

모두 지난 경자년 한 해 동안 수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덕 내의 평안과 소원성취를 기원 드립니다.

코로나는 일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호흡기 검체채취가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는 검체채취

에서부터 확진검사까지 고군분투하여 그 위상을 날로 높이기에도 충분하였습니다.

우리 충북도회는 긴급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자원 받아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25명, 충북도 보건의료정책국에 20여명의 명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글을 빌려 자원해주신 졸업예정 후배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협회는 지역 감염감시지원단으로 임상병리사 Pool을 운영할 것임으로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회는 전체 회원 700여명의 '작지만 강한 충북 임상병리사회'입니다. 회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발표 기회마련과 대 내외 학회 지원, 분과별 소모임 추진,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업무별 상담사 운영, 분회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문위원 및 원로회원과 함께 하는 확대수련회 등의 다양한 사업 중 코로나로 인하여 북부지역 중추에서의 보수교육 불발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지난 해였습니다.

도회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애김없는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작지만 강한 충북도 협회'로 한층 더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해보십시오.

최고의 백신인 올바른 마스크착용과 손 씻기로 감염예방과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회장 조 성 훈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제31대 경상남도회장 재갈석입니다. 지난해는 COVID-19 확산 저지를 위한 핵심역할을 담당하시느라 얼마나 노고 많으셨습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동안의 화상과 앞으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롭게 구성되는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집행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위상과 권익향상을 위해 '열린, 소통, 가치' 운영을 통해 기본에 충실하고 투명하며 점점 더 화합된 경상남도회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사회와 재정의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새롭게 설립한 경남도회 사무실을 적극적인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병원의 회원님들의 권익향상과 임금개선을 위해 발로 뛰겠으며 학술 활동 장려를 위해 지역사회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포상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모든 보건단체들이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도 중앙회와 더불어 함께 나아갈 것이며 여기에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잘못된 일은 질타 해주시고 잘하는 일은 칭찬해주셔서 함께 가는 경남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활동, 정책, 예산은 회원님들을 가장 우선하여 진행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앞으로의 3년을 임상병리사로서 느끼는 가장 가치 있는 시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신축년에는 회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 재 갈 석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대 회장 조대현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제59회 종합학술대회 & 국제컨퍼런스'를 우리 경북도회가 주관으로 경주에서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숙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경북도회 회원 모두와 전임 회장님 및 임원진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로 인한 실례가 부담감도 있지만, 경북도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회와 함께 소통해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성공적인 회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원년에 경북도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변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활동으로, ▶회(喜) : 자긍심 - 회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끔 도회의 역할 ▶애(愛) : 사랑감 - 도회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교육 인재풀 운영)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도회의 역할 ▶락(樂) : 공감 -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회의 역할

이와 더불어, 함께 소통하며 화-애-락이 있는 경북도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회장 조 대 현

전라남도임상병리사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남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문병석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전남도회를 이끌어주신 전임회장단,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전남도회 집행부는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전남 회원들의 고충에 공감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분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미래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어려운 시기에 많은 바 소명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알찬 학술행사를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써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임상병리사의 자존심을 바로 세워 임상병리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직장과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 문 병 석

전라북도임상병리사회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전라북도 임상병리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임상병리사회 회장 이형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며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접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집단면역이 빨리 형성되어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밤낮없이 최일선에서 검체채취 및 확진검사를 수행하느라 애써주시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계시서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2023년에는 전라북도 군산 컨벤션센터에서 '제 61 회 전국 종합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종합 학술대회를 통하여 전라북도 임상병리사회가 전국에서 최고로, 세계로, 도약하는 반석같은 역할을 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공적인 학술 대회 개최를 위해 전 임원분 아니라 모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진단, 치료, 예방과정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중소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회원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앙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임상병리사의 권익신장과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분회방문을 통하여 회원들과의 신뢰와 소통에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하는 3년 동안, 저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주저 없이 최고의 속도로 달려 나갈 것입니다. '임상병리사로서 더 행복한 전라북도 임상병리사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임상병리사회 회장 이 형 섭

\* 분과회회장 인사말은 4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을 위한 타당성 연구

2020년 협회 정책과제인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기반으로 추출된 내용이며 증빙을 토대로 명칭의 정체성, 국제성, 선호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내·외적 상세한 자료는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2021년 53권 1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연구책임자: 구분경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1. 연구 배경

임상병리사 직업 명칭은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보건직료인에 비해 ‘사전적,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임상병리사 명칭은 의료기사 직군 중에서 유일하게 국·영문이 불일치하여 제도적 환경 개선이나 번역, 검색, 인용, 홍보 등에서 오류를 초래하고 있어 정립화, 국제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회원이나 일반인, 전문가들은 Medical Technologist(직역 의료기사; 사전적 의미 임상검사기사; 한국에서는 임상병리사) vs Medical Technicians(의료기사 직군) vs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한국에서 의료기사 직군에 대한 번역어)를 ‘직업적, 신분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임상병리사를 직역하여 Clinical Pathology Technologist and Technician으로 해야 할지 유사 동의어로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and Technician으로 해야 할지 헷갈린다. 이 외에도 임상병리사 명칭은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and Technologist, Biomedical Laboratory Scientist and Technologist, Biomedical Analyst 등도 있다. 다른 한편 Clinical Pathologist(임상병리과 전문의)를 사용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신분 착오(가방 세탁? 또는 무지 단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2. 설문 조사

본 연구는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총 22,638명에게 온라인으로 제시된 명칭에서 2개를 선택하는 설문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이 중 3,999명(17.6%)이 설문조사에 회신 답변하였다. 조사에 제시된 임상병리사 명칭은 국·영문이 일치된 제시어로 임상검사분석사(Clinical Laboratory Analyst), 의생명검사분석사(Biomedical Laboratory Analyst), 의생명분석사(Biomedical Analyst), 임상검사과학사(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진단검사분석사(Diagnostic Laboratory Analyst), 의생명병리사(Biomedical Pathology Technologist) 등 6종이다.

명칭 선호도는 회원 1인당 2개를 선택하는 답변을 통해서 6,958개가 산출되었으며 이 중 5,555개(79.83%)가 분석사(Analyst) 레벨을 선호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특성으로 여성이 76%, 20~40대, 10년 미만과 10년~30년 경력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또한 근무기관은 종합병원(59%), 병·의원(26%)에서 참여하였고, 지역분포에서는 서울(27%), 경기도(18%)가 다수였다.

명칭에 대한 조사결과는 진단검사분석사가 2,417명(34.73%)로 가장 많았고, 임상검사분석사는 1,710명(24.57%), 의생명병리사는 758명(10.89%), 의생명분석사 730명(10.49%), 의생명검사분석사는 730명(10.03%), 임상검사과학사는 646명(9.26%) 순으로 조사되었다.

## 3. 명칭 제언

결론적으로 임상병리사 명칭의 재정립 요구는 의생명과학 기술 개발로 인해 교육, 연구 및 검사실 관리업무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된 회원들의 요구도, 자문, 문헌 고찰, 국제표준직업분류, 주요 대상국 현황을 기반으로 ‘진단검사분석사, 의생명검사분석사, 의생명분석사’로 명칭 정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 ※ 응답자 선호 명칭

제시 명칭	선호도 (%)
진단검사분석사*	2,417 (34.73)
임상검사분석사*	1,710 (24.57)
의생명병리사	758 (10.89)
의생명분석사*	730 (10.49)
의생명검사분석사*	698 (10.03)
임상검사과학사	645 (9.26)

총 6,958 (100%) (1인당 2개 선택)
응답자 3,999명
정회원 22,638명

\* 분석사 합 5,555 (79.83%).

## 4. 국제의생명과학연맹(IFBLS, 별칭 국제임상병리사연맹) 주요 회원국의 임상병리사 명칭

### 1) 기사(技士)

- ①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 미국
- ② Higher Technician in Clinical Diagnostic Laboratory : 스페인

- ③ Medical Technologist : 미국[MT(AMT), MT(AAB)], 필리핀, 태국, 한국 임상병리사(직역 Clinical Pathology Technologist), 일본 임상검사기사(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대만 의거검험사(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 ④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캐나다, 그리스
- ⑤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 프랑스, 체코
- ⑥ Biomedical Laboratory Sanitary Technician : 이탈리아
- ⑦ Medical Technical Laboratory Assistant : 독일

### 2) 분석사(分析士)

- ① Clinical Analysis Technician : 포르투갈
- ② Medical Analytics Technician : 폴란드
- ③ Biomedical Analysis Technician : 스위스
- ④ Medical Analyst : 네덜란드
- ⑤ Biomedical Analyst : 오스트리아, 스웨덴
- ⑥ Bioanalyst :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 ⑦ Bioengineer : 노르웨이

### 3) 과학사(科學士)

- ①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 미국[舊 CLS(NCA)]
- ②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 미국[MLS(ASCP)],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③ Biomedical Scientist : 영국

## 5. 표준직업분류(Standard Occupations Classification)에서 임상병리사 신분

국제표준분류는 대체로 20년마다 개정(ISCO-58 제정, ISCO-68 개정, ISCO-88 개정, ISCO-08 개정)하며 각국은 10년 또는 산업 환경과 직업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있다. 직업 명칭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1) 과학사(Scientist)

영국 Biomedical Scientist, 호주·뉴질랜드 Medical Laboratory Scientist의 경우 생명과학자(생물학자), 생화학자과 같은 ‘생명과학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근거] 영국 2020 SOC, 호주·뉴질랜드 2013 SCO

### 2) 분석사(Analyst)

스웨덴·오스트리아 Biomedical Analyst는 ‘보건준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근거] 스웨덴 2012 SCO, 오스트리아 2008 ÖISCO

### 3) 기사(Technologist)

미국 Medical Technologist/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캐나다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는 ‘보건준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있다(미국 Medical Laboratory Scientist는 과학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근거] 국제노동기구 2008 ISCO, 미국 2018 SOC, 캐나다 2016 NOC, 프랑스 2017 PCS-ESE, 독일 2020 CP, 스페인 2011 CNO, 이탈리아 2011 CP, 한국 2017 SCO, 일본 2009 SOC, 대만 2010 SOC

## 6. 기사 호칭에 대한 거부감

### 1) 국내 과학계열 종사자 사례

2000 한국표준직업분류와 2007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주요 차이점은 전문직에서 과학전문가의 경우 학자를 연구원(Researcher)으로 변경하였고, 공학전문가는 기술자에서 기술자 및 연구원(Engineer and Researcher)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준전문직인 기술공(Technician)은 일괄적으로 시험원(Technician)으로 변경하여 직업 명칭 선정에서 신중을 기하였다. 변경 사유는 예를 들어 전기공학에서 공학기술자는 Engineer나 Engineering Technologist로 표기하고 공학기술공(기술원)은 Engineering Technician으로 표기해도 무방하지만, 생물학 등의 경우 생물기술공(기술원) 등을 사용하면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호칭하는 기사 의 경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명칭 독립 자격도 있지만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의 통칭으로서 공학 이외의 다른 분야, 직업 명칭, 자격 명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경우가 많다(예: 의료기사, 생명공학기사, 운전기사, 서비스기사 등). [근거] 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홈페이지

## 2) 미국 임상병리사 사례

미국에서는 개인이 임상병리사를 호칭할 때 ‘엠텍(Med Tech), 랩텍(Lab Tech), 또는 테크(Tech)’과 같은 비전문 용어로 호칭한다. 2009년 미국임상병리학회(ASCP)는 Medical Technologist와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를 통합한 새로운 명칭인 Medical Laboratory Scientist가 직업에 대한 자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Medical Technologist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위 직종인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Medical Laboratory Assistant 등을 감독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미국 임상병리사의 공식 법령이나 직업분류 명칭은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and Technician을 사용하고 있다. 민간에서 개인이 취득하는 자격 명칭으로는 Medical Technologist and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Medical Laboratory Scientist가 있다. [근거] 미국 ASCLS & AMT & AAB & ASCP 홈페이지

## 3) 영국 임상병리사 사례

영국 임상병리사는 교육과 직업 단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Pathological and Bacteriological Laboratory Assistant,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를 거쳐 상향된 명칭인 1974년 Medical Laboratory Scientific Officer, 2004년 생명과학자 레벨인 Biomedical Scientist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위 직종인 Medical Laboratory Assistant 등을 감독하고 있다. [근거] 영국 IBMS 홈페이지

## 4) 스웨덴 임상병리사 사례

북유럽 등의 여러 나라들은 임상병리사 명칭이 정립이 되기 전까지 Laboratory Nurse, Laboratory Assistant 또는 Laboratory Technician으로 호칭되고 있었다. 대다수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초(특정 업종이나 환경에서 여자 비율이 높은 현상) 직업이며 학제 개편, 여권 신장 등을 통해 Biomedical Analyst를 사용하고 있다. [근거] 스웨덴 IBLS 홈페이지

## 7. 과학사 호칭에 대한 거부감

### 1) 우리나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000 과학사 명칭 없음

우리나라 표준직업분류에서 과학전문가는 ‘학자(예를 들어 대학교수)’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과학전문가를 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학재단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의 범위를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학,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상병리사 연허 취득과정에 전문대학 졸업자가 있어서 과학사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근거] 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홈페이지, 미국 NSF의 과학기술인력 범위

### 2) 우리나라 임상병리사 직급은 이원화되어 있지 않음

보수적 관점에서 과학자는 연구개발인력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상급 학위(대학원) 또는 연구실적(논문), 경력을 가진 교수나 연구원 등을 지칭한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임상병리사는 미국이나 영국 등처럼 직급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보조인력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

며 난이도에 따른 검사행위(단순검사·중등도복잡검사·고도복잡성검사)도 구분 없이 수행하고 있다. 채혈행위 또한 의사의 지시·감독(지도) 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도 병동채혈·외래채혈에 참여하고 있어서 과학사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근거] OECD의 연구개발인력 정의

## 8. 임상병리사 명칭에 대한 장단점

### 1) 임상병리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함

우리나라의 임상검사기술자는 ‘1963년 법률 제정 시 일본의 임상병리기술사(2003년 임상검사사(臨床検査士) 개명: 임상검사기사(臨床検査技師)가 경력개발 차원에서 취득하는 자격증 명칭)’를 참고하여 임상병리사로 작명하였다. [근거] 병리협보 30년사, 일본 CLMJ & JSJM 홈페이지

### 2) 국제적으로 의학계열에서는 임상병리사를 사용하지 않음

임상병리사가 아닌 임상검사기사(CLT or MLT), 임상검사과학사(CLS or MLS), 의생명분석사(BMA) 등을 사용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의 명칭을 직역한 “Clinical Pathology Technician”은 수의임상병리사(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Technician, VCPT)에서 사용하고 있다. [근거] IFBLS 홈페이지, 미국 AVCPT 홈페이지

## 9. 병리사 명칭에 대한 장단점

### 1) 병리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함

회원 간에 약식으로 호칭하는 ‘병리사’의 경우 간호사, 치료사 등과 같이 발음이나 소문적 측면에서 호감이 있지만 직업의 정체성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 [근거] IFBLS 홈페이지, 국제노동기구 2008 ISCO, 미국 인사관리처 자격표준운용지침 Pathology Technician GS-0646 시리즈, 영국 AAPT(Anatomical Pathology Technician) 홈페이지, 미국 NSH(Histotechnologist) 홈페이지, 미국 ASCT(Cytotechnologist) 홈페이지

### 2) 국제적으로 임상검사의 실무전문가를 병리사라고 하지 않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임상검사기사/임상검사과학사, 의생명분석사의 교과목과 세부분야는 조직병리학(조직학), 세포병리학(세포학)을 포함한 혈액학, 수혈학, (생)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임상검사인력의 경우 전문영역에 따라 Medical Technologist/Medical Laboratory Scientist/Clinical Laboratory Scientist가 전체 직종 중 51.0%로 가장 많으며 Histotechnologist and Histotechnician 8.06%, Cytotechnologist 2.90%, Cytogenetic Technologist 1.74%, Molecular Biology Technologist 1.15%,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17.5%, Phlebotomy Technician 6.9%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즉 ‘병리사(Pathology Technician)’는 병리와 소속 의료기사로 정의되고 있으며 전반적 임상검사 업무범위를 포괄하지 않는다. [근거] 미국 ASCP 2019 wage survey, 미국 인사관리처 자격표준운용지침 Pathology Technician GS-0646 시리즈






‘전 세계 점유율 압도적 1위’의  
믿을 수 있는 염색성

4분 30초의 초고속 염색 /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인텔리전트 클리닝 / 자동 시약량 모니터링 / Cytocentrifuge 기능 / 다양한 염색성 저장 및 편리한 사용 / 시간당 400매의 고속처리 / 폐수 용기 모니터링 / 염색데이터 보호 기능 / 추적관리기능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그람염색기
- 결핵염색기
- 혈액염색기
- 세포염색기(New)

수입원: (주)브라이텍  
Tel: 02-948-8246 Fax: 02-948-7559 Email: cs.brightek@gmail.com Web: www.brightek.co.kr

협력사  
(주)성현메디텍 / 대원약품 / 동방메디텍 / (주)동성메디칼 / 프라임메디텍 / 길림 / (주)하메스

###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강복만)는 지난 1월 22일(금) 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과 비대면(ZOOM)으로 동시에 진행했고, 포상자 발표 및 총회 책자에 실린 심의 의견을 처리했다.

서울아산병원 특별분회(임영근 분회장)가 최우수 특별분회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청 특별분회(김민호 분회장), 중앙대학교병원 특별분회(홍순철 분회장), 강북삼성병원 특별분회(지명석 분회장)가 우수분회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장상에는 박미숙 위원(동신한방병원), 조원상 재무이사(서울중앙혈액원), 조인숙 국제이사(서울대학교병원), 이현아 자원봉사단(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선정됐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의장은 강복만 행정부회장(서울중앙혈액원), 김정훈 학술부회장(중앙대학교병원), 황문선 사업부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선정됐다. 또한 서울시회 표창장은 김동현 분회장(혈액원), 최규석 부회 총무(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홍준영 총무부장(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김주희 재무부장(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홍성철 교육부장(삼성서울병원), 문병현 설의부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철용 기획정책부장(한일병원), 류수정 자원봉사단(이대목동병원)이 선정됐고 마지막으로 대한임상병리사회회 표창장은 전영민 법제이사(서울특별시서북병원)가 선정됐다.

총회 의장에는 민영훈(씨젠의료재단), 총회 부의장은 노일권(서울시청) 회원이 각각 선임됐고, 이영남(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옥희(목동힘찬병원) 회원이 새로운 감사로 선임됐다.

임원개선 및 예산, 사업 계획(안) 심의의 건은 2월 5일(금)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개회하였으며, 최인영(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인철(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최상규(건국대학교병원) 선거 관리 위원 및 민영훈(씨젠의료재단) 총회 의장, 노일권(서울시청) 총회 부의장, 서울시회 집행부가 참석했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예산 및 사업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됐고, 단독 후보의 신임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회장 강복만, 부회장 황문선(행정부회장), 차재신(학술부회장), 신상현(사업부회장)이 제27대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강복만 회장은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우거운 마음으로 견뎌야 수용하면서 투명한 회무운영을 통한 6,500여명의 회원분들과 소통하며 다가가는 협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대구시회,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16대 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 비대면으로 진행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유희림)는 지난 1월 22일 코로나19 대구시 특별 방역대책실시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의거,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급변 비대면 총회는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처음 시행하는 비대면 총회였지만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회 임원들의 철저한 환경 및 방역 준비로 무사히 성료됐다.

급변 총회에서는 2020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제16대 임원(대구시회 회장, 부회장, 감사)선거도 함께 실시되었다.

제16대 회장으로 유희림 회장(대구보훈병원)이 당선되어 제15대에 이어 제16대에도 연임하게 되었다.

유희림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다시 대구시회 회원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며, 회원과 소통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이 임상병리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회장에는 이재숙(대구보훈병원), 이용운(경북대학교병원), 차원석(계명대학교동산병원) 회원이, 감사에 성양수(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정재엽(재)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검사센터) 회원이 선출되었다

### 충북도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고 코로나19 중증환자 지역거점 베스티안병원 방문

명예기자: 정혜은

‘작지만 강한 도회’를 표방하는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성훈)는 지난 1월 23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2020년 회무 결산 보고 및 감사결과 보고를 심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이루어진 이번 총회에는 대의원 총 56명중 화상 28명, 위임 25명 성원으로 도회 운영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상자로는 교육이사를 맡아 보수교육을 관리한 이승현(청주의료원) 회원이 중앙회장 표창을, 조현영(충북대학교병원), 안창준(충주의료원) 회원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홍현수(청주성모병원) 회원이 공로상을, 충북의료기사회장상으로 김성환 회원(한국건강관리협회세종의원), 관내 대학 모범학생 표창으로 김세은(세명대학교), 민지수(청주대학교), 이승민(중원대학교), 정종현(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승현(극동대학교) 학생이 수상했다. 또한 학술이사로 활약한 이석준(청주대학교) 회원과 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황선중(충북대학교) 회원이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진 제27대 임원선출에서는 조성훈(회장)과 김창수(부회장)이 입후보하여 재선임을 통해 26대에 이어 제27대에서도 충북도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신임 부회장은 충북대학교병원 손재철(충북대학교병원) 회원이 선출되었고 감사는 김은주(충북대학교병원) 회원과 법제이사로 활동했던 전병인(한국병원) 회원이 입후보하여 감사로 선임됐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많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조성훈 회장과 가승현 총무이사는 회원들을 직접 찾아가 총회 기념품을 전달했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축하 인사를 건네며 신임 집행부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대의원총회 이후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지역거점병원으로 새로 지정된 베스티안병원(충북 오송)을 방문해 안순옥 회원을 비롯한 다른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성훈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각 부의 현실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운영 ▲원거리 회원을 위한 순회 보수교육 시범 실시 ▲지역 감염감시 지원단 POOL 조성 ▲검사실운영 파트별 상담원 구성 ▲신입 회원을 위한 협회 서비스 안내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도로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도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59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지난 1월 30일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제5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시상식에서는 부산광역시장 포상으로 이삼기 공보이사와 김광현 회원, 모범구회장 표창으로 정영희 회원, 모범회원 표창으로 김정현, 김태훈, 김용의, 박은진, 이승형 회원, 학술상으로 김효정, 곽은영 회원, 감사패로는 동아메디칼 대표이사 김진택, (주)신양화학 대표이사 홍종식, 부산광역시 중구청 부구청장 이병문이 수상했다. 또한 공로패가 이천수 총회위원장, 성희경 전 동의과학대학교 교수, 이회린 전 해운대백병원 실장에게 수여되었다. 우수졸업 표창으로는 동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수현, 동의과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이예진,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박현진,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보현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어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2020년도 사업결산 및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2021년 사업계획(안)및 예산(안)이 진행되었으며 임원개선으로는 총회위원장 이수상(부산성모병원), 총회부의장 박노진(동아대학교병원)이 선출되었다. 제26대 회장단에는 회장 황원주(부산대학교병원), 행정부회장 김상봉(남부혈액 검사센터), 사업부회장 강종원(부산성모병원), 학술부회장 임용(동의대학교)가 선출됐다. 황원주 신임 회장은 “함께 하는 협회, 기회를 준비하는 협회, 미래를 이어가는 협회로 거듭나며, 부산사회가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CHEMISTRY DxC 8801,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21년 3월 24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상품을 받으실 주소

### [제457호 당첨자]

● **이은혜 회원:** 임상병리사가 병원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인터뷰기사 보니 조금 더 사실감 있게 다가왔고 아직경력이 많은 임상병리사는 아니지만 진검이나 병리 생리기능 파트가 아닌 국과수, 치과, 동물병원, 수력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방면에서 임상병리사들이 일할 환경이 되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 **박성재 회원:** 혈액관리법 시행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수혈 관리실 업무를 전담하게 될 인력 선정의 결과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수혈 및 혈액관리에 있어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한 각 의료가관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혈전문임상병리사 등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한 단계 더 약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구본경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부위원장, “전문대 00과(科)를 00학과(學科)로 변경해야”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과의 명칭을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과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상기 문구가 전문대학 육성 및 중견인력 배출이라는 교육 및 학습권에서 사회적 차별성 독소 조항이며 규제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있으면 ‘OO학과’로, 없으면 ‘OO과’라고 표기하고 있다. 구본경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부위원장은 병리협보를 통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게 ‘학과’라는 명칭을 쓰는 전문대학이 많다고 인경광학과(2-3-4년제), 드론공학과, 승마산업학과, 산림복지학과, 군사학과 등을 예를 들었다. 영미권에서는 학과를 Department, Study로 표기하면 우리나라처럼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전문대에

‘과’라는 명칭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학문 진흥, 경력 개발, 과학기술인력 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본경 부위원장에 따르면 위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교육부에서는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대학의 장(長)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상황이다.

구본경 부위원장은 “시대적 환경변화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전문대학 과의 명칭(표기)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같은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의뢰기사총연합회 단체들과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지속적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상구 회원, 건국대학교병원 박관 교수와 함께 반측성 안면경련 교과서 출간



박상구 회원(건국대학교병원)이 신경외과 박관 교수(건국대학교병원)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경근 질환 중 하나인 반측성 안면 경련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가이드 책자를 출간했다. 박관 교수는 안면 경련에 대한 분류, 병인, 진단, 감별, 수술 원리 및 실습, 의학적 치료 등 모든 측면을 17개 챕터로 자세하게 다뤘으며, 박상구 회원을 비롯한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13명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박상구 회원은 ‘chapter 11.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 Microvascular Decompression for Hemifacial Spasm’

의 출간에 참여했다. 이 책자는 지난 20년 동안 4,000명 이상의 반측성 안면 경련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 혈관 감압 수술을 시행했고, 그동안 수술 중 얻은 교훈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하나 모았다. 또한 지금까지 반측성 안면 경련에 대한 50편 이상의 SCI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154페이지 분량, 69개 figures로 구성했다.

또한 박상구 회원은 박관 교수와 공동으로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 Hemifacial Spasm - A Practical Guide’ - author book’의 출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반측성 안면경련 수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학적 변화를 신경감시 검사 파형(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며 올해 출간될 예정이다.

박상구 회원은 “신경외과 분야의 대가인 박관 교수가 편측성 안면경련(hemifacial spasm) 수술에 대한 책을 집필하면서 저에게 신경학적 검사(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부분에 대한 단독 집필을 요청했다”며 “이번에 발간하는 책은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뿐 아니라 수술 중 검사를 진행하는 의뢰기사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씨젠의료재단, K-방역에 기여한 공로로 '제12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4회 연속 수상



질병영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 '제12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에서 '진단검사 수탁기관' 부문 4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은 한·중·러 3개국 언론사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의료 서비스 시상식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시상식은 2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의료 세계화 공헌상·보건복지부장관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등 모두 46개 부문에서 수상자들이 발표되었다.

‘진단검사 수탁기관’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씨젠의료재단은 2019년 9월 첫 해외 검사센터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를 설립하고, 진단검사 전문인력이 최신 장비를 활용해 혈액학·임상화학·면역학 등 일반 검사와 분자진단 검사를 비롯한 특수검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사립의료기관 최초로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 정식 승인을 받아 카자흐스탄 방역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분원·부산검남검사센터·대구경북검사센터·광주호남검남센터를 운영하며 가장 많은 코로나19 분자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종기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에 재단의 진단검사 역량이 일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 높은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우리의 검사 역량은 곧 K-방역 체계의 핵심자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대구경북검사센터



카자흐스탄알마티 검사센터(SKL)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검사 품질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구축



❖ ONE DAY 신속한 결과보고



❖ K-방역 최일선



❖ AI(인공지능) 등 최신기술 도입

씨젠의료재단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http://www.seegenemedical.com)